

● 외환리포트

전일동향

전일 대비 0.50원 상승한 1,469.50원에 마감

6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 대비 0.50원 상승한 1,469.50원에 마감했다.

이날 환율은 NDF 종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.70원 상승한 1,472.70원에 개장했다. 최근 3거래일 동안의 순매도 규모는 9조 원 이상을 기록하며, 1,469.5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종가 기준으로 지난 1월 22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, 설 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쏟아지며 환율의 오름폭은 미미했다.

주간장종 변동 폭은 8.60원이었다.

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35.34원이다.

전일 달러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 (15:30)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1472.70	1475.30	1460.00	1469.50	1470.30

전일 엔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935.34	941.74	930.81	935.34

전일 유로화 변동

시가	고가	저가	종가
1730.55	1737.53	1727.35	1737.15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

	1M	3M	6M	12M
보장환율(수출)	-1.11	-4.67	-9.7	-16.18
결제환율(수입)	-0.71	-3.28	-7.12	-12.64

*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

* 해당월 말일(영업일)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

*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(<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>)에서 확인 가능

금일 전망

위험선호 심리 회복에...1,460원대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4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(1,469.50) 대비 4.55원 하락한 1,463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

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심리 회복으로 하락 전망한다. 주말 간 뉴욕증시는 AI 과잉투자 우려와 소프트웨어 주가 급락이 진화됨에 따라 반등에 성공했고, 이에 국내 증시도 외국인 자금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. 젠슨 황 앤비디아 CEO가 주요 고객사 데이터센터 과 임투자 논란에 현재 지출 수준이 적절하며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. 그는 초기 인터넷 인프라 구축 시절과 비교해 현

재 유휴 상태로 방치된 인프라가 없다고 강조했으며, 이러한 반박 속 비트코인과 귀금속 가격 상승에 동조해 다우지수는 사상 첫 5만 선 돌파에 성공하기도 했다. 더불어 설 연휴를 앞두고 기업들의 달러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경우 환율 하락폭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.

다만, 전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는 환율 하단을 제한할 전망이다.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예상보다 큰 승리를 거두면서 시장은 공격적인 재정 확대로 인한 엔화 약세를 우려하고 있고, 원화 역시 엔화 약세와의 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458.67 ~ 1469.67 원
체크포인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33232.62 억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.55원 ↓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美 다우지수 : 50115.67, +1206.95p(+2.47%)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128.81 억달러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256 억원

주의사항

※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.

※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